

수소 · UAM · 우주산업 관련 주간정책 동향

□ 목차

구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수소	울산수소터미널개발, 외자유치 통해 추진 (2025.02.13)	1
	울산수소값1년새 22% 급등 '차주 시름' (2025.02.13)	1
	목포시, 전기·수소차 보급사업 시행 (2025.02.13)	1
	양구군, 올해 전기·수소 친환경자동차 89대 보급 (2025.02.13)	2
	인천시, 전기차·수소차 충전 인프라 확충 박차 (2025.02.14)	2
	서산시, 2028년까지 300억 들여 수소 관련 인프라 조성 (2025.02.14)	2
	"수소산업 배우자" 광양시·시의회, 독일 선진도시 벤치마킹 (2025.02.16)	3
	태화강역~장생포 수소트램 건설 속도낸다 (2025.02.16)	3
	화성시, 전기·수소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2025.02.17)	3
	창원시의회수소특위, '절차적 문제, 위법' 철저히 밝힌다 (2025.02.17)	4
	김제시, 올해 수소승용차 50대와 수소버스 6대 보급 (2025.02.18)	4
	완주군청소년수련관창작소프로그램운영...수소에너지교육(2025.02.18)	4
	청주시, 수소경제 활성화 인프라 확충 속도 (2025.02.18)	5
	청주시, 수소생산기지·수소가스안전허브센터 구축 추진 (2025.02.18)	5
	남해군,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2025.02.18)	5
	전북자치도의회경제산업건설위원회, 수소산업 현지의정활동 추진 (2025.02.18)	5
	그린수소생산단가'4만 원'...적자 어쩌나 (2025.02.18)	6
우주	로봇·바이오·우주...초격차 스타트업 기술사업화 지원 늘린다 (2025.02.17)	6
	오영훈지사"우주산업 육성, 서귀포 청년 일자리 창출" (2025.02.14)	7
구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수소	암모니아를쉽게분해해수소로만든다(2025.02.16)	7
우주	KAI,'K-AI'Day개최...항공우주 AI 발전로드맵 제시 (2025.02.13)	8
	GIST,미래우주항공 연구센터 개소 (2025.02.13)	8
구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수소	수소차시장주춤...양대경쟁사'현대차·토요타' 힘 합치나 (2025.02.17)	9
	케이워터크레프트, 그린수소 혁신선도... 워터라이저·워터스테이션 상용화 박차 (2025.02.18)	9
우주	우주항공등도내주력산업6개 기업, 5050억 '통 큰 투자' (2025.02.13)	10
	UAE찾은 김동관 한화 부회장 "방산·우주·해양·에너지로 협력 확대" (2025.02.17)	10
	NASA우주 예산도 깎겠다는 '스페이스X' 머스크..."이해충돌 우려" (2025.02.13)	11
	한미합작'스피어엑스' 28일 우주로 발사된다 (2025.02.13)	11
	이상휘, 우주항공청법 개정안 대표발의..."기술료 의미 명확히 해 혼란 방지" (2025.02.13)	11
	"우주에서 자율주행까지"...6월 '레이저 월드 오브 포토닉스 2025' 참여 열기 (2025.02.13)	11
	[전자파학회 동계학술대회] K-전파, 자주국방·우주산업 마중물 됐다 (2025.02.13)	12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 수소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 (해당 없음)
지자체	□ 울산 수소터미널 개발, 외자유치 통해 추진 (2025.02.13) - 울산경제자유구역청(울산경제자유청)이 캐나다 항만 터미널 운영사 트라이곤 퍼시픽 터미널과 울산 수소터미널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울산시의 캐나다 방문에서 논의된 결과로, 글로벌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 및 울산 지역 수소·암모니아 수출입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 포함 - 트라이곤사는 캐나다 프린스 루퍼트항에 저탄소 에너지 허브를 구축 중이며, 2030년까지 수소·암모니아 수출용 부두 건설을 목표로 함. 해당 항만은 한국 및 아시아와의 근접성, 캐나다 내 주요 산업 구역과의 연결성을 바탕으로 최적의 물류 접근성 제공 - 울산경제자유청은 트라이곤사의 기술력과 울산의 산업 기반을 결합하여 2030년까지 친환경 수소·암모니아 중심 허브 개발을 추진할 계획임. 이번 협약을 계기로 트라이곤사의 울산 지역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울산이 글로벌 수소 시장을 선도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
	□ 울산 수소값 1년새 22% 급등 '차주 시름' (2025.02.13) - 울산 지역 차량용 수소 가격이 1년 새 22% 상승하면서 수소차 운전자들의 부담이 가중됨.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울산 지역 평균 수소 가격은 1kg당 9700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지만, 일부 충전소에서 추가 인상을 예고함. 특히, 겨울철 연료 효율 저하로 충전 빈도가 증가하면서 운전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심화 - 지난해 2월 울산 지역 수소 가격이 7900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년 새 1800원이 상승한 상황임. 수소 가격은 원재료비, 운송비, 기타 비용 증가로 인해 지속적인 인상 압력을 받고 있으며, 충전소들은 가격 조정을 검토 중임. 반면, 휘발유 가격은 최근 국제유가 하락으로 소폭 하락했지만, 수소 가격은 인화 요인이 부족해 안정적인 가격 유지가 어려운 실정 - 수소전기차 커뮤니티에서는 “휘발유보다 경제성이 떨어진다”, “정부 정책이 수소차 보급 확대와 상반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음. 전문가들은 글로벌 원자재 시장의 변동성, 석유화학 업계의 침체 등이 수소 가격 인상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하며, 향후 추가 상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
	□ 목포시, 전기·수소차 보급사업 시행 (2025.02.13) - 목포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을 위해 ‘2025년 전기·수소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함. 올해 전기자동차 160대와 수소자동차 10대에 대한 구매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전기 승용차는 최대 1080만원, 화물차는 최대 1850만원, 수소자동차는 대당 3500만원까지 보조금 지급 - 신청 대상은 목포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만 18세 이상의 개인, 목포에 사업장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며, 해당 자동차 제조·수입사를 방문해 구매 계약 후 보조금 신청을 진행해야 함. 차량 출고가 10일 이내 가능한 경우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 - 보조금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목포시는 2050 탄소중립 실현 및 기후변화 대응을 목표로 보급사업을 확대할 방침임. 또한, 시민들에게 보조금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을 숙지하도록 안내하며, 친환경차 도입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 양구군, 올해 전기·수소 친환경자동차 89대 보급 (2025.02.13) - 강원 양구군이 대기환경 개선과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를 위해 올해 전기차 84대, 수소차 5대를 포함한 총 89대의 친환경 자동차를 보급할 계획임. 전기 승용차는 최대 899만원, 화물차는 최대 2398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며, 다자녀 가구, 청년, 농업인 등에 대한 추가 지원 제공 - 수소전기차의 경우 1대당 345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며, 지원 대상 차종은 현대 자동차 넥쏘임. 올해 보급되는 5대 중 1대는 장애인, 차상위계층,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 등 우선순위 대상자에게 배정될 예정 - 보조금 신청자는 전기·수소차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신청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양구군에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이 지원 대상임. 신청 접수는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양구군은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통해 대기오염 저감을 추진할 계획
	□ 인천시, 전기차·수소차 충전 인프라 확충 박차 (2025.02.14) - 인천시는 수송 분야 에너지 전환을 위해 전기차 및 수소차 충전 인프라 확충에 나섬. 올해 국비 공모사업 및 공동주택·공공시설 내 충전시설 의무 설치를 통해 6천 기 이상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추가 구축할 계획임. 현재 인천에는 완속충전기 2만777기, 급속충전기 1689기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 - 수소차 운행을 위한 충전시설도 확대될 예정임. 기존 13곳에서 16곳으로 수소 충전소를 늘리고, 현재 운영 중인 3곳의 수소 생산시설을 4곳으로 확장할 계획임. 이를 통해 수소차 이용자의 충전 편의성을 높이고 친환경 교통 인프라를 강화할 방침 - 인천시는 전기·수소 충전 인프라 확충을 통해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을 가속화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할 계획임. 국비 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인프라 구축을 확대하고, 향후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에 대비한 체계적인 충전 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
	□ 서산시, 2028년까지 300억 들여 수소 관련 인프라 조성 (2025.02.14) - 충남 서산시는 수소경제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8년까지 총사업비 300억 원을 투입하여 수소 관련 종합 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임.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제3기 수소도시에 선정되어 국비 150억 원, 도비 45억 원을 확보한 상태이며, 주거·교통·인프라·지역특화 등 4개 분야에서 사업이 추진될 예정 - 주거 분야에서는 440kW 연료전지를 구축하여 전기 및 열을 공급하고, 수소 공급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위한 튜브트레일러 4대를 운영할 예정임. 교통 분야에서는 수소버스 6대, 수소청소차 6대를 도입하여 친환경 교통수단 확산 및 탄소 배출 저감을 도모할 계획 - 서산시는 올해 수소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2026년 상반기 실시설계를 진행한 후, 하반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계획임. 서산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는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
	□ "수소산업 배우자" 광양시·시의회, 독일 선진도시 벤치마킹 (2025.02.16) - 전남 광양시와 시의회는 수소 생태계 고도화를 위해 독일의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방문을 추진함. 이번 방문에는 광양시 부시장, 시의회 의장,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및 관계 공무원 등 14명이 참여하며, 독일의 신재생에너지 및 수소도시 인프라를 직접 견학하고 광양시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 - 독일은 2030년까지 전력생산의 80%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2023년 탈원전을 단행한 이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56%까지 확대함. 광양시 관계자들은 독일 프라운호퍼연구소, 지멘스 에너지 베를린 공장, 로이나 화학단지 등을 방문하여 수소 생산시설, 분산에너지 활용 방안, 수소 유통구조 등을 분석할 예정 - 광양시는 이번 방문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소 제조 방식과 설비 구축의 국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임. 또한, 정부의 ‘수소도시 2.0’ 추진 전략에 맞춰 수소특화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소 산업 모델을 구축하는 데 주력할 방침
	□ 태화강역~장생포 수소트램 건설 속도낸다 (2025.02.16) - 울산시는 2027년 말 개통을 목표로 태화강역에서 장생포까지 운행하는 수소트램 건설 사업을 본격 추진함. 사업비 235억 원이 투입되며, 태화강역과 장생포를 연결하는 기존 철도 노선을 활용하여 친환경 관광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 - 수소전기트램은 총 245명 정원의 무가선 트램으로 제작될 예정이며, 차량 제작 계약은 3월 24일까지 입찰을 거쳐 4월에 제조업체가 확정됨. 또한, 태화강역~장생포 구간의 실시설계 용역도 병행하여 추진하며, 2025년 하반기 착공이 목표로 설정 - 다만, 기존 철도 노선 활용 방안을 두고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과 협의 중이며, 일부 구간을 신규 개설할지 여부가 논의되고 있음. 울산시는 최적의 노선 방안을 도출하여 2028년 국제정원박람회 이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
	□ 화성시, 전기·수소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2025.02.17) - 화성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5년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함. 올해 보급 규모는 전기 승용차 4724대, 전기 화물차 620대, 전기 승합차 10대, 수소차 356대로 총 5710대이며, 국비·시비 포함 사업비 492억 원이 투입 -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승용차 최대 861만 원, 화물차 최대 2361만 원, 수소차는 3500만 원 정액 지원됨. 청년층과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도 확대되며, 34세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이하 생애 첫 자동차 구매자는 국비 지원액의 20%,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 - 보조금 신청자는 차량 구매계약 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2개월 이상 화성시에 거주한 개인과 법인임. 화성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친환경차 보급사업을 확대할 계획
	□ 창원시의회 수소특위, ‘절차적 문제, 위법’ 철저히 밝힌다 (2025.02.17) - 창원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수소특위)는 창원시 수소액화사업의 위법성과 절차적 문제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임. 수소특위는 일부에서 제기된 정치적 논란과는 무관하게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목적으로 설정 - 주요 조사 사항으로는 ▲타당성 검토 부실 ▲전문성 부족한 인사 채용 ▲지방재정법 위반 ▲의회를 무시한 사업 추진 ▲비상식적인 구매 계약 등이 포함됨. 특히,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분석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사업이 강행된 점이 문제로 지적 - 수소특위는 증인신문을 통해 당시 사업을 추진했던 공무원들과 관련 업체들의 책임을 규명할 계획임. 또한, 허성무 전 창원시장의 출석을 거부하고 관련 업체 관계자들이 해외 출장 등으로 증인 출석을 피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철저한 감사를 요청할 예정
	□ 김제시, 올해 수소승용차 50대와 수소버스 6대 보급 (2025.02.18) - 김제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 확대를 위해 올해 수소승용차 50대와 수소버스 6대를 지원할 계획임. 수소 승용차는 대당 3450만 원, 수소버스는 저상형과 고상형 각각 3대를 공급하며, 신청은 24일부터 가능 - 지원 대상은 김제시에 90일 이상 거주한 만 18세 이상 시민, 법인 및 단체이며, 취약계층·다자녀 가구·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등에게 우선 배정됨. 신청자는 영업점을 방문하여 안내받은 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접수 필요 - 김제시는 2022년부터 수소차 보급사업을 추진했으며, 총 59대를 보급 완료함. 올해는 수소충전소 준공을 통해 수소차 운행 인프라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친환경 교통 체계를 구축할 계획
	□ 완주군 청소년수련관 창작소 프로그램 운영... 수소에너지 교육 (2025.02.18) - 완주군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소 에너지 교육 프로그램 ‘나만의 수소(H2) 굿즈 창작소’를 운영함. 17일에는 수소 생산기지 및 충전소를 견학하였으며, 21일까지 수소 캐릭터를 디자인하여 굿즈로 제작하는 활동 진행 -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으로서 수소를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구성됨. 교육과 실습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 개념을 습득하고, 수소도시 캐릭터 제작을 통해 흥미 유도 - 완주군은 청소년들의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임. 향후 수소 에너지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지역 내 친환경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 청주시, 수소경제 활성화 인프라 확충 속도 (2025.02.18) - 충북 청주시는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 확충을 본격화함. 현재 청주 지역에는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는 수소충전소 5곳이 있으며, 지난해 전국 최대 규모의 액화수소충전소를 준공함. 또한, 수소 승용차 1139대, 수소버스 16대, 수소 시내버스 6대가 보급된 상태 - 흥덕구 강내면에는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 신대동에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생산기지를 구축 중임. 이들 시설이 완공되면 하루 평균 3~4톤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어 청주 및 인근 지역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될 전망 - 청주시는 올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참여하여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수소벨류체인을 구축할 계획임. 이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과 청정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
	□ 청주시, 수소생산기지 · 수소가스안전허브센터 구축 추진 (2025.02.18) - 청주시는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생산기지과 수소가스안전허브센터를 구축할 계획임. 흥덕구 강내면에는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 신대동에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생산기지를 조성 중이며, 완공 시 하루 3~4톤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을 전망 - 수소가스안전허브센터는 내년 흥덕구 오송읍에 준공될 예정이며,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협력하여 수소 안전 관련 연구 및 교육을 수행할 계획임. 이 센터는 수소 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역할도 수행 - 청주시는 올해 국토부의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참여하여 도시 내에서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활용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수소벨류체인을 형성할 예정임. 이를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친환경 수소경제 기반을 강화할 방침
	□ 남해군,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2025.02.18) - 경남 남해군은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25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함. 올해 총 3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승용 수소전기차 100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상반기에는 40대를 우선 공급할 예정 - 보조금 지원 금액은 경상남도 내 최대 지원 수준인 3500만 원으로 책정됨.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남해군에 거주한 개인 및 지역 소재 법인, 기업체, 공공기관 등이 포함되며, 출고·등록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 - 남해군은 친환경 모빌리티 확대를 통해 지역 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교통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계획임. 또한, 수소전기차 이용자의 충전 편의를 위해 수소충전소 인프라 확충도 병행할 예정
	□ 전북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수소산업 현지의정활동 추진 (2025.02.18)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경산위)는 전북 수소산업 발전과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지의정활동을 실시함. 위원회는 전북테크노파크 수소저장용기 신뢰성평가센터,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용품 검사인증센터, (유)휴먼에노스를 방문하여 수소산업 관련 시설을 점검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 위원회는 수소저장용기 신뢰성평가센터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기업들의 연구개발 비용 절감 방안을 논의함. 또한, 수소용품 검사인증센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며, 전북이 국제적인 수소산업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 - 이번 방문을 통해 경산위는 수소산업 관련 기업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도내 중소기업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임. 또한,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강화하여 전북 지역 경제 및 산업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
	□ 그린수소 생산 단가 '4만 원' ...적자 어쩌나 (2025.02.18) -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국내 최초로 그린수소 상업 판매를 시작했으나, 생산 단가가 높아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현재 그린수소의 판매가는 1kg당 1만5000원이지만, 생산 단가는 1만9800원 수준으로 5000원가량 손해를 보고 있는 구조 - KBS 취재 결과, 제주도와 11개 기관이 진행한 실증사업 분석에서는 하루 소비량 200kg 기준으로 생산 단가가 4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기존보다 경제성이 훨씬 더 낮으며, 장기적으로 수소 생산 확대가 어려운 상황 - 제주도는 기술 개발을 통해 생산 단가를 낮추고, 수소차 보급 확산 등 규모의 경제를 형성하여 적자를 해소할 계획임. 그러나 현재와 같은 적자 구조가 지속될 경우 수소산업의 경제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

☞ UAM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 (해당 없음)
지자체	- (해당 없음)

☞ 우주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 로봇·바이오·우주...초격차 스타트업 기술사업화 지원 늘린다 (2025.02.17) - 중소벤처기업부가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의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카이스트, 안전성평가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과 협력을 강화 -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로봇, 바이오, 우주항공 분야의 딥테크 스타트업이 연구개발(R&D)과 상용화 사이의 간극을 좁힐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논의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 정부는 연구소 인프라와 원천기술을 활용한 스타트업의 신속한 사업화를 돕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 및 정책 지원을 확대할 계획
지자체	□ 오영훈 지사 "우주산업 육성, 서귀포 청년 일자리 창출" (2025.02.14) - 제주특별자치도 오영훈 지사가 서귀포 하원테크노캠퍼스에 우주 관련 기업을 유치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을 추진한다고 밝힘. 제주한화우주센터가 10월 준공되면 직접 300명, 간접 700명의 고용이 기대 - 서귀포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크루즈 관광객을 대상으로 K-POP 공연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임. 강정항에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설치하여 관광객 체류 시간을 늘리고,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증대할 계획 - 또한, 도내 청년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기업 기숙사 리모델링 지원 예산을 편성하고, 관광업 및 농업 등 지역 기반 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정책을 강화할 방침

□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 수소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 암모니아를 쉽게 분해해 수소로 만든다 (2025.02.16) - 한국화학연구원 연구진이 암모니아를 수소로 변환하는 효율을 8배 향상시키는 기술을 개발함. 기존 코발트-철 촉매에 세륨산화물을 첨가하여 암모니아 분해율을 기존 10.1%에서 81.9%까지 증가시킴. 또한, 세륨산화물이 촉매 내구성을 높여 장기간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 - 연구진은 이번 기술이 암모니아 기반 대형 수소 생산 플랜트, 수소 발전, 선박 및 수소 충전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전망함. 또한, 2022년 개발된 니켈 기반 촉매 대비 반응성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550도에서 장시간 연속 운전 시에도 구조적 변화가 없는 실정 - 글로벌 시장조사에 따르면, 암모니아 분해 기술 시장 규모는 2023년 약 680만 달러에서 2030년까지 연평균 23.2% 성장하여 136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됨. 연구진은 추가 연구를 통해 촉매의 저온 성능을 개선하고, 2030년까지 상용화를 목표로 연구를 지속할 계획
지방기관	- (해당 없음)

☞ UAM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 (해당 없음)
지방기관	- (해당 없음)

☞ 우주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 KAI, 'K-AI' Day 개최...항공우주 AI 발전로드맵 제시 (2025.02.13) -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경남 사천 본사에서 ‘K-AI Day’ 세미나를 개최함. 이번 행사에서는 AI 기반 항공우주 SW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데이터 분석 및 AI 기술 개발 관련 국내외 기업과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 - KAI는 AI 기반 무인복합체계, AI 파일럿, AI 적용 시뮬레이터 등 다양한 기술을 발표함. 또한, 미국의 빅데이터 분석 전문 기업 팔란티어와 국내 AI 기업 코난테크놀로지 등이 참가하여 국방·방산 분야 AI 기술 발전 방향을 공유 - KAI는 AI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차세대 공중전투체계(NACS), 미래 항공전자 기술, 무인비행체 등 6대 미래 사업을 추진 중임. 향후 소프트웨어 리더로 도약하기 위해 AI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고,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
지방기관	☐ GIST, 미래우주항공 연구센터 개소 (2025.02.13) -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반 우주기술 연구를 선도하기 위해 미래우주항공 연구센터(G-STAR)를 개소함. 이 센터는 우주항공 및 첨단 모빌리티 분야의 핵심 연구를 수행하며, 국가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할 예정 - G-STAR 센터는 12대 국가전략기술을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하며, 전남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와 협력하여 국내 우주산업의 발전을 지원할 계획임. 이를 통해 우주 관련 첨단 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에 기여할 예정 - 센터 관계자는 산·학·연·관 협력 모델을 구축하여 글로벌 연구기관과 연계하며, 한국 우주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힘. 또한, AI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를 통해 미래 항공 및 우주기술 발전에 기여할 방침

□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 수소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수소차 시장 주춤...양대 경쟁사 '현대차·토요타' 힘 합치나 (2025.02.17) - 현대자동차와 토요타가 수소연료전지 기술 개발을 지속하는 가운데, 글로벌 완성차 기업 중 일부는 수소차 개발을 중단하고 있음. 토요타는 3세대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개발하여 기존 대비 연료 효율을 1.2배 향상하고, 주행거리를 20% 증가시켰으며, 내구성과 설계를 개선 - 현대차는 이에 맞서 올해 상반기 ‘넥쏘’ 후속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며, 수소탱크 용량 증가 및 주행거리 650km 이상 성능을 갖춘 ‘이니시움’ 콘셉트 차량을 선보일 계획임. 두 기업은 연구개발(R&D) 확대와 함께 수소 생태계 전반에 대한 협력 가능성 모색 - 글로벌 수소차 시장은 2023년 대비 21.6% 감소한 1만2866대 수준으로 축소되었으며, 현대차와 토요타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음. 전문가들은 수소차가 장기적 관점에서 에너지 산업과 연결된 기술로 접근해야 하며, 두 기업이 규모의 경제를 형성해 협력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
	□ 케이워터크레프트, 그린수소 혁신선도... 워터라이저·워터스테이션 상용화 박차 (2025.02.18) - 수소에너지 발전시스템 개발 기업 케이워터크레프트는 그린수소 생산 및 활용 기술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음. 회사는 100kW급 수전해 장치 ‘워터라이저’를 개발 완료했으며, 1MW급 모델도 개발 중임. 말레이시아와 협력하여 소수력 발전 기반 그린수소 생산장치 수출도 추진 - ‘워터스테이션’은 연료전지와 연계한 수소 발전기로, 10kW급 실증을 완료하고 100kW급 발전기를 개발 중임. 또한, 에너지 생산·제어·모니터링이 가능한 ‘K-EMS’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하여 수소 에너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 실정 - 글로벌 수전해 시장은 2023년부터 연평균 36%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2033년에는 278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케이워터크레프트는 고효율 수전해 기술을 확보하고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해 캐나다·미국 지사 설립 추진
대학교	- (해당 없음)
해외	- (해당 없음)
기타	- (해당 없음)

☞ UAM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해당 없음)
대학교	- (해당 없음)
해외	- (해당 없음)
기타	- (해당 없음)

☞ 우주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우주항공 등 도내 주력산업 6개 기업, 5050억 ‘통 큰 투자’ (2025.02.13) - 경남 지역 주력산업을 대표하는 6개 기업(한화엔진, 지티엘, 삼천리기계, 월드테크, 유림테크, 신원종합개발)이 총 505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함. 이번 협약을 통해 우주항공, 조선해양, 정밀기계 등 경남 주력산업 분야에서 신규 투자와 고용 창출이 기대 - 각 기업은 친환경 엔진 생산 확대, 우주항공산업 대응을 위한 생산시설 확충, 자동차 부품 제조 강화 등을 목표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임. 특히, 신원종합개발은 남해군에 글로벌 명품 브랜드 호텔 및 리조트를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에 추진 - 경남도는 지난해 투자 유치 금액이 9조5762억 원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였으며, 앞으로도 미래 첨단산업 및 관광 산업 유치를 집중할 방침임. 기업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원스톱 지원 시스템과 투자 지원 제도를 확대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
	☐ UAE 찾은 김동관 한화 부회장 “방산·우주·해양·에너지로 협력 확대” (2025.02.17) -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UAE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방산 전시회 ‘IDEX 2025’에 참석하여 방산·우주·해양·에너지 협력을 논의 -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체계(L-SAM)와 K9 자주포의 중동 진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무인체계 및 친환경 선박·에너지 분야에서도 협력 방안을 모색 - 김 부회장은 UAE와 기존 방산 협력을 공고히 하는 한편, 발사체·위성·해양·에너지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여 경제 발전에 기여할 계획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대학교	- (해당 없음)
해외	□ NASA 우주 예산도 꺾겠다는 '스페이스X' 머스크..."이해충돌 우려" (2025.02.13) -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가 NASA의 예산 지출을 삭감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임. NASA의 주요 계약업체인 스페이스X를 경영하는 머스크가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 -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NASA의 국제우주정거장 화물 운송을 담당하는 최대 계약업체 중 하나이며, 머스크는 NASA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비효율적인 사업이라고 비판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정부효율부의 예산 감축 검토가 NASA 내부 정보 접근 문제와 연관될 가능성 존재. 미국 내에서는 머스크가 국방부 예산을 살피는 것 또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지적
기타	□ 한미 합작 ‘스피어엑스’ 28일 우주로 발사된다 (2025.02.13) - 한국과 미국이 공동 개발한 차세대 우주망원경 ‘스피어엑스’가 28일 미국 캘리포니아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될 예정임. 이번 프로젝트는 한국천문연구원과 NASA의 협력으로 진행되며, 전 세계 천체에 대한 물리적 정보 수집이 목표로 설정 - 스피어엑스는 적외선 관측이 가능한 망원경으로, 하늘 전체를 102가지 색상으로 분석하여 10억 개 이상의 천체를 지도화할 계획임. 이를 통해 은하에 존재하는 물과 이산화탄소 분포를 파악하고, 생명체 존재 가능성을 연구하는 데 활용될 예정 - 우주망원경은 빅뱅 이후 우주 급팽창의 원인과 은하 형성 과정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우주항공청은 향후에도 국제 협력을 확대하여 한국의 우주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우주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방침
	□ 이상휘, 우주항공청법 개정안 대표발의..."기술료 의미 명확히 해 혼란 방지" (2025.02.13) -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남·울릉)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우주항공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함.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불명확하게 정의된 ‘기술료’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혼선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으로 설정 - 현행법상 ‘기술료’는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 일부를 정부에 납부하는 ‘정부납부기술료’를 의미하지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개념으로 정의됨.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기술료’를 ‘정부납부기술료’로 구체화하여 일관된 해석 가능 - 이상휘 의원은 기업 및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법적 혼선 없이 기술료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안이라고 설명함. 이번 법 개정으로 실무적 혼선을 줄이고, 우주항공청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
	□ "우주에서 자율주행까지" ..6월 '레이저 월드 오브 포토닉스 2025' 참여 알기 (2025.02.13) - 세계적인 레이저·광학 기술 전시회 ‘레이저 월드 오브 포토닉스 2025’가 6월 독일 뮌헨에서 개최될 예정임. 이번 전시회에는 2000여 개 글로벌 기업과 70개국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에서 6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 - 한국 기업들도 우주항공, 자율주행, 광통신 분야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음. 특히, 다누리 탐사선 카메라 렌즈를 제작한 그린광학과 자율주행용 라이다 센서를 개발한 무리기술이 주요 참가업체로 주목받고 있는 실정 - 이번 전시회는 첨단 광학 기술과 레이저 응용기술을 공유하는 기회로, 포토닉스, 양자컴퓨팅, 공장자동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 기술이 소개될 예정임.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전시회 참가를 적극 추진 □ [전자파학회 동계학술대회] K-전파, 자주국방·우주산업 마중물 됐다 (2025.02.13) - 한국전자파학회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동계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함. 올해 학술대회는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K-전파’를 주제로 진행되며, 전파 기술이 국방·우주·위성 분야에서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 - 국방과학연구소 박종승 교수는 기조강연에서 전파기술 기반 무기체계의 핵심성을 강조하며 국방 반도체의 국산화 필요성을 제기함. 또한, LIG넥스원과 한화시스템이 위성통신 기술 및 전천후 감시정찰 시스템 개발 현황을 발표 - 학회는 글로벌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최신 전파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차세대 위성·국방 전파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및 정책 개선을 논의함. 국내 기업들은 우주산업에서 전파기술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첨단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 끝 -